티베트 佛, 코로나 극복 노력 '눈길'

양대지도자, 코로나19 특별메시지 발표도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 19사태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불교계가 사태 극복을 위해 초종파적인 협력에 나섰다. 4월 18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트리사이클' 을 비롯, 인도의 '파율' 등 외신들은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카르마파가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발표한데 이어 티베트 불교계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다양한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의 양대 지도자로 불리는 달라이 라마와 카르마파는 4월 14일 각각 코로나 19사태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지난 3월 30일 특별 메시지를 발표한데 이은 2차 메시지이다.

달라이 라마는 미국 타임지에 기고한 특별 메시지에서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모든 생명이 고통 속에서 병들고 늙어 죽는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마음의 힘을 통해 분노와 불안, 애착을 다스릴 수 있다"며 코로나 19에 의한 공포를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 19사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의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들을 자비심으로 대하고 도와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모두 함께 협력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마파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카르마파는

달라이라마, "자비" 강조
카르마파, 조기종식 발원
다양한 구호활동도 이어져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선 제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전했다"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두려워 말라고 말했다.

카르마파는 "요즘 같이 무상한 대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면으로 눈을 돌려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르마파는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한 시간씩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다함께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염불독송과 기원을 올리겠다고 전했다. 또 메시지를 발표한 직후 인도정부에 코로나 19 구호기금을 위해 230만 루피(한화 약 3,600만원)를 기부했다.


인도 소외계층 마을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타시훈포 사원 스님들. 사진출처=파율

이런 가운데 인도에 소재한 망명 티베트 사원들 역시 지역사회를 위해 구호활동에 나섰다. 남인도 카르나타카주에 소재한 타시훈포 승원은 인도 정부에 구호기금과 함께 소외계층에게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1개월 치의 식량을 전달했다. 또한 조기종식과 확진자들의 쾌유를 위한 약사여래 성취기도를 봉행했다. 인근 지역에 소재한 라뙤 승원 역시 통행금지령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노인 가정에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의 구호활동에 나섰다. 두 승원은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겔룩파의 중요한 총림사찰이다.

북인도 우타라칸드 주의 망명촌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캬파의 본산, 돌마포당(Dolma Phodrang) 사무국도 주정부에 230만 루피의 구호금을 기부했다. 또한 사캬파의 전 종정 사캬 티첸 린포체는 세계 각국의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 장애를 제거하는 기도와 전염병을 치유하는 엽의관음(葉衣觀音)의 관정을 인터넷 라이브로 중계했다.

한편 인도정부는 4월 14일 의료계와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3주간 시행되어온 전국 봉쇄령(Lock down)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인도에선 1만 4천여명 이상의 코로나 19 확진자와 5백여 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日, 시다림 · 49재도 원격으로 봉행

장의회사 '요리소우' 주도
원격법회 등 사업 선보여
한시적 운영…원격상담도


천도재와 기제사까지 원격으로 시도하는 일본불교계. 사진출처=PR 타임즈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선 시다림과 49재와 같은 장례법회도 원격으로 진행하는 풍경이 등장해 화제다. 4월 15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PR 타임즈' 등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 불교계의 새로운 시도를 보도했다.

일본의 장의 전문회사 '요리소우' 는 "유가족과 사찰 양측의 안전과 함께 시기에 맞는 의례를 봉행하기 위해 원격법회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정부가 밀폐 공간, 밀집장소, 밀접접촉의 3가지를 피할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장례식장에서의 시다림과 사찰에서의 49재, 기제사와 같은 중요한 법회와 의례가 이 3가지에 해당하면서 사찰과 유가족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요리소우 측은 "대중법회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한편 49재나 기제사 등 특정기간이 중요한 법회의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원격법회를 개시하는 계기를 밝혔다. '스님의 전화법회' 라는 이름으로 개시하는 원격법회는 4월 16일부터 예약을 받아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먼저 유가족이 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해 시다림, 49재, 기제사 등 원하는 사안을 상담하고 희망일과 시간을 예약한다. 이때 원하는 사찰이나 스님, 혹은 종파를 선택할 수 있다. 예약일시에 맞춰 상담에 응한 스님이 사찰에서 전화 SNS나 원격 라이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의례와 법회를 생중계 하는 식으로 원격 법회가 진행된다. 특히 원격 중계라는 점에서 유가족과 사찰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요리소우는 "해당 서비스는 현재 실시중인 긴급사태선언이 종료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또한 법회뿐만 아니라 스님과의 상담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걱정과 공포로 상담을 원하는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이 사찰로 몰려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편 요리소우社는 앞선 2013년 온라인으로 스님을 파견하는 사업을 개시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해 미얀마 불교 · 가톨릭 화합

냐닛샤라 스님, 1만 달러 기부
교황 설립 구호단체 통해 전달


미얀마 냐닛샤라 스님이 성심대성당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창립한 긴급구호단체에 1만달러를 기부했다. 사진출처=바티칸뉴스

띠다구 서야도(Sitagu Sayadaw)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미얀마 불교 지도자 아쉰 냐닛샤라(Ashin Nyanissara) 스님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창립한 긴급구호단체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얀마의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4월 21일(현지시간) 바티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냐닛사라 스님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긴급구호 기금 1만 달러를 비롯해 쌀, 쿠킹오일, 콩, 양파, 소금 등을 미얀마 만달리이에 위치한 성심(Sacred Heart) 대성당을 통해 기부했다.

이날 냐닛사라 스님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종교 간 연대, 즉 자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심 대성당 틴 윈(Tin Win) 대주교는 "냐닛사라 스님의 기부는 전 국민에게 종교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 이라며 "진정한 친구로서 나는 그의 공헌에 감명을 받았다. 위기에 직면한 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호의와 연대를 보여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긴급구호단체는 지난 6일 평신도 전교 단체를 통해 초기 기부금 75만 달러를 조성하면서 설립됐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다.

한편 냐닛사라 스님은 평소에도 종교에 대한 자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얀마는 불교도가 다수인 국가로, 극단주의 성향의 불교도들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냐닛사라 스님은 미얀마 불교의 선규자로서 종교 간 대화와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불교의 사회적 참여와 인도주의 사업을 이끌고 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났다.

다만 냐닛사라 스님은 미얀마 무슬림에 대한 탄압에 동조하는 듯 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가 과거 미얀마 군부가 무슬림족 소탕 작전을 시행할 당시 군 지휘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에는 40만 명 이상의 승려들이 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시작하라' 고 말할 것이다. 그건 매우 쉽다"고 말한 것이 문제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베삭데이'

베트남불교협회, 올해
온라인 생중계로 결정


2019년 베트남 베삭데이. 사진출처=난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남방 불교계의 연중 최대 행사인 '베삭데이(Vesak Day)' 에도 차질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 등이 제한된 탓이다. 이에 베트남 불교계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베삭데이 행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베트남불교협회(the Vietnam Buddhist Sangha, VBS)가 올해 베삭데이 행사를 유튜브, 페이스북, 부타 등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난단(Nhandan)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삭데이는 남방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 행사다. 올해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VBS 중앙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의식, 연등행렬 등을 개최하지 않도록 전국 불교 지역위원회와 사찰 등에 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VBS는 "오는 30일 오전, 전국의 모든 사찰 및 불교 기관에서 3개의 종소리가 동시에 울릴 것"이라며 "전국의 불자들은 각자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올려 달라"고 권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